
2020년 제47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11. 13. ~ 11. 1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1. 14.	시청률	0.119

【총 평】

‘천년고도, 문학을 따라 흐른다’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오고 있는 경주의 풍경을 인문학적으로 그려내려고 노력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된 경주, 천년이 넘는 격변의 소용돌이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경주의 시간 풍경, 옛 신라인들의 멋과 기상을 잘 표현하였다.

천년고도 경주를 대표하는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박목월의 문학적 탄생의 배경이 된 생가의 자연 배경 이야기와 문학적 탄생 비화를 전해주어 인문학 감성을 가득 채웠다. 경주엑스포의 술거미술관에 전시된 박대성 화백의 수묵화는 박화백의 독특한 화풍의 매력과 그가 오른팔이 없는 불편을 극복하여 그림으로 승화시킨 감동을 안겨주었다.

【구성 및 내용】

모자(母子)의 종교관 충돌로 빛은 비극을 그린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1936년), 시인 박목월 선생의 ‘나그네’(1946년) 등을 탄생 시킨 경주, 동리목월 문학관에서 김동리와 박목월의 대표작을 살펴보고 그 배경이 된 경주의 명소를 소개하고 작품 속 한 장면을 재연으로 구성했다. 특히, 깊은 늪인 애기청소는 김동리의 단편소설 ‘무녀도’의 배경이다. 박목월 작가의 생가로 이동해서 대표시를 낭송하고 그의 육필 원고들을 공개하면서 작가의 흔적을 그대로 쫓는 연출력이 돋보였다. 박목월 시 ‘나그네’는 생가 앞에서 바라본 넓은 들판에서 탄생했으며, 자연과 향토적 정서를 짙게 드러냈다. 이밖에 과거 천년전의 사람들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 대릉원, 노란 은행잎으로 뒤덮인 쉼터 도리마을 은행나무숲, 천년의 역사를 살아온 소나무들의 삼릉 솔숲 등을 소개했다.

술거미술관으로 이동하기 전에 경주 대릉원과 도리마을 은행나무숲, 삼릉 솔숲 등 사진 찍기 좋을 만한 명소들을 소개했다. 박대성 화백의 작품이 전시된 술거 미술관에 들러 박화백의 법고창신(옛것을 통해 새롭게 앎)의 정신이 깃든 대형 작품을 소개하고 박화백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화백은 오른 팔이 없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수묵으로 산수화를 그려내는 대작을 탄생시키는 감동을 선사하였다.

경주로 이주하여 내내 경주에서 문화 유적지의 고찰을 통해 옛 선조들의 정신을 배우고 자신의 그림으로 재탄생시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내는데 열정적인 모습이 전해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감동을 주었다.

경주의 바다와 첨성대,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는 자연 예술품 경주 양남 주상절리, 핑크 물리단지, 5년 전에 복원한 신라고취대의 역할과 활약을 소개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손으로 명주를 짜내는 두산 명주마을에서는 장인이 직접 명주 짜는 모습을 소개하고 월선 손씨와 역암 이씨의 국내 최대 집성촌 양동마을, 문무대왕릉, 서백당, 심수정, 무침당, 월정교 등을 소개하며 아름다운 경주를 그려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1. 14.	시청률	0.092

【총 평】

‘보령, 시간의 흔적’은 벼루를 만드는 오석 산지로 유명한 보령을 찾아 돌에 생명을 불어 넣는 벼루명장과 석공예가의 작품활동을 통해 정으로 돌을 쪼아내는 사운드 등을 채집해 이색적인 사운드멘터리를 보여주었다. 특히, 3대째 가업을 이어오는 80대 벼루명장과 석공예가의 장인정신과 돌에 대한 철학이 잘 표현됐고 돌 다듬는 청아한 소리와 함께 원석을 다듬어 벼루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소개한 점이 몰입도를 높였다. 돌을 골라서 가를 때 나는 소리에 주목해, 그 소리로부터 “얼마나 쓸 만하고 가치 있는 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소리의 임팩트와 존재감이 강조돼 사운드멘터리라는 특징을 잘 담았다. 보령하면 대천항과 해수욕장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돌을 소재로 접근한 것이 특이했고 오석을 쪼는 소리와 벼루 장인의 섬세한 손놀림이 특별한 느낌을 줬다. 돌에 ‘시간의 흔적’이라는 이미지를 입혀서 줄거리를 세운 것도 특징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보령 하면 머드, 바닷길이 열린다는 무창포를 떠올리겠지만, 실은 석재산업으로 이름을 먼저 알렸던 땅이다. 특히 검은 빛을 띠는 돌, 오석은 햇볕을 오래 쬐거나 비를 맞아도 결코 변색이 없어 예로부터 귀한 비석으로 쓰였다.

돌무더기로 쌓아올린 충청수영성에서 오석을 가공하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효과적이었고, 프리젠테가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 한 구석의 바위에서 벼루 장인으로 이어간 내용 구성도 매끄럽게 잘 이어졌다.

보령시 성주면은 좋은 돌이 많이 나며 석재산업을 이끌던 석공의 고향으로, 특히 검은빛을 내는 보령의 오석은 입자가 고와 정밀하게 선을 표현할 수 있어 석공예가 작품의 좋은 재료가 된다.

조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남포 벼루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벼루명장은 벼루를 만드는 아버지 모습을 보며 일곱 살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웠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 돌을 지게로 날랐다고 한다. 벼루제작 기술을 가진 벼루명장의 가장 우선된 작업은 질 좋은 돌을 구하는 것이다. 성주산 일대에서 구한 원석을 자르는 시간만 해도 9시간이 걸린다. 남포벼루의 재질 중 최고로 꼽는 돌은 구름무늬가 박힌 백운상석이라는 돌로 좋은 벼루돌은 소리로 알 수 있다고 한다. 맑은 소리는 병이 없으나 둔탁한 소리는 문제가 있는 돌이다. 벼루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각이 있는 각연으로 발달했다. 단단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벼루돌은 다루기도 새기기도 쉽지 않다.

석공예가의 청아한 돌다듬는 소리는 그림자 형상과 함께 하나의 작품이었고 벼루명장은 돌을 두드려 백운상석을 골라내는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었는데, 5734번째 벼루를 만든 80대 청년의 꿈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1. 14.	시청률	0.026

【총 평】

‘나우북’에서는 북한의 금연법을 다루었고, ‘단박톡’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 내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의 금연법을 다루면서 김정은의 금연 성공 여부와 금연법을 시행하게 된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다루어 눈길을 끌었다.

단박톡’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북한의 향후 외교 방향 전환 등을 살펴보아 흥미로웠다. 또, 지난 오바마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북 정책에 대한 움직임을 예상해보았고, 북미·남북간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강조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구성 및 내용】

‘나우북’에서 다룬 내용은 북한이 금연법 시행령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관한 것이었는데, 북한은 쿠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담배 소비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한 애연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돌연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 설명이 이목을 집중시켰고, 북한의 금연포스터, 금연 캠페인, 금연 제품 등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이 흡연을 하게 된 계기, 금연의 성공 여부 등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언급하는 대목도 재미있었다.

‘단박톡’에서 다룬 “미국 대선 결과로 미리 알아보는 북미 관계 및 한반도 정세?”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의 선거제도 설명과 조 바이든 당선자의 행적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북미관계의 이슈들을 점검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동하면 좋은 것인지를 그 해법을 찾아보았는데, 시의적절하면서도 순발력 있는 기획이었다. 또한, 트럼프와 바이든의 북미 외교 방식을 톱다운과 보텀업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할 때 자막으로도 상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이해를 도왔다. 오바마 정권을 1기와 2기로 나누어 북한에 다른 외교 방식을 선보인 것을 설명하면서 바이든의 북미 정책을 예상해 보는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이 TV토론회에서 언급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빼놓지 않고 언급해서 기대감을 주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예상해보는 대목에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 북한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방식이 꽤 설득력이 있었고, 우리 정부는 도발 자세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와 닿았다.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언급하는 대목도 꽤 의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한미 두 정상은 함께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도 돋보였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로서 한미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보상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출연자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11. 14.	시청률	0.031

【총 평】

‘한낮의 공포, 예천 산성동 미군 폭격사건’은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기의 폭격에 의해 산촌 마을 주민들이 무참히 희생당한 기록을 재조명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일깨운 기획이 돋보였다. 예천 산성동 미군 폭격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인민군이 결집했던 예천일대에 대한 집중폭격 전략에 의한 것으로 당시 폭격목표 오류나 경찰의 소홀에 기인한 것을 밝혀냈다. 또한, 당시 조사팀장의 인터뷰를 통해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민간인을 먼저 대피시키지 않고 무조건 폭격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한 점도 영상기록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미국과의 협상 권고, 위령 사업 지원, 공식기록물에 등재 조치를 내린 점은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한 한을 풀다는 의미에서 다행이었다.

【구성 및 내용】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에 의해 전쟁과는 무관했던 마을과 그곳에서 살던 주민들이 입었던 참혹한 피해에 대해 다뤘다. 폭격으로 인한 마을의 피해와 주민들의 인명피해, 사건의 개요와 진실 등을 다뤄주었다. 시작부분에서 산성마을의 지역적 특색을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폭격이 있었던 그날 마을 분위기가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었다.

1951년 1월,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에 경찰기가 마을을 둘러싼 학가산과 동네를 한바퀴 돌았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따라 다녔다. 평화로운 오후 시간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야산에서 놀이에 열중하고 부녀자들은 삼삼오오 이웃에 모여 길쌈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이에 대피할 틈도 없이 가옥화재와 함께 마을과 집안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지역폭격 전략이 실행되었는데 미 10군단 사령부는 1951년 폭격 명령을 내렸었다. 적의 은신처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폭격하는 의미였다. 1951년 1월 19일 하루 동안 폭격은 3차례 걸쳐서 이뤄졌다. 특히 산악지대를 불태우는데 쓰이던 네이팜탄이 주로 사용되었다. 갑작스런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집안에 있던 사람, 밭에 있던 사람,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마을의 대부분의 집 또한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피해를 당한 시신 수습과 생활터전도 없는 상황에서 애를 먹었다. 폭격 이후 마을 곳곳은 포탄과 기관총 흔적은 물론 불발탄 또한 상당히 발견되기도 했다. 어린 동생이 포탄을 입가에 맞아 두 달 병원 다니다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환자가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 약도 없었고, 한동안 폭발물을 곁에 두고 삶을 영위하기도 했다. 당시 부상을 당했던 주민들은 평생을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왔으며 아직도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1. 15.	시청률	0.003

【총 평】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1부 - 다시 불붙은 행정수도론’는 정치권에서 들썩이는 행정수도 이전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2003년 행정수도 일부 이전 이후 관습 헌법 위헌 결정으로 보류되었던 행정수도 완전체 이전 문제가 2020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경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냈다. 특히 왜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 여당 측 의견과 전문가, 세종시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특히, 행정복합도시 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서 명실공히 반쪽짜리 행정수도 계획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부분도 잘 연결되었다.

【구성 및 내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는 여정과 그동안 세종시가 걸어 온 경과와 함께 최근 국회 이전이 거론된 다음에 현지 부동산이 꿈틀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에서부터 위헌 결정과 세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국회에 설치된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앞으로 추진 가능한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청와대는 그대로 서울에 남고 국회는 본원을 남기고 이전하는 방법,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하는 방법, 헌법 개정을 통한 수도 이전의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언급된 신행정수도 정책안에 대한 소개와 그 배경, 그리고 16년 만에 재점화가 된 배경에 관해 주로 설명했다. 이 밖에 행정수도 이전에 각종 통계자료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고루 다루고 16년 전 위헌 결정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16년 전 이슈화된 신행정수도론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이어질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균형발전론’도 꽤 비중 있게 다루어 어느 정도 설득력을 확보했고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일련의 과정도 이해가 수월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 이유와 근거,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지역민 기대감, 왜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가,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배경, 여당이 주장하는 행정수도 큰 그림은 무엇인지, 행정수도 위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세종시 이전인가, 방안의 실효성과 행정수도 이전의 적합 방향성을 무엇인지를 다뤄 관심을 이끌었다.

진행자는 마무리 멘트에서 “정치 성향이나 지역논리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나라, 국민의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해야 한다.”고 정리해 주었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1. 15.	시청률	0.019

【총 평】

“모르면 뺏긴다, 소유권 분쟁”은 실생활에서 자칫 소홀히 다뤄 권리를 빼앗기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을 상담방식으로 풀어줘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소유권 분쟁은 흔히들 생각하는 부동산 소유권에서부터 소소하게 식품,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운영권에 대해서도 발생하는데, 전화연결과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하게 다뤄주었다.

특히,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점유와 소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왜 법에서 소유했다고 그대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 분쟁당사자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인용한 것도 좋은 참고가 되었다.

‘무엇이든 물어볼 법’에서는 ‘뽕페식당 예약 당일 취소’ 사연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와 민사 형사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줘 상담자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줬다.

【구성 및 내용】

친구와 함께 친구 아버지의 생활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수익금이 생기면서 수익배분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 수익배분 대해 논의한바 없어 계약서가 없지만 장난삼아 작성한 각서가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특히 땅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항상 점유냐 소유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라는 법적 개념을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50년 전 할머니가 산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토지대장을 확인하니 해당인의 명의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에는 점유로 땅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시효취득 법규정이 존재한다. 3년간 다른 사람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을 경우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인정된다. 다만 수목의 경우 땅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다른 사람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땅의 소유자에게 나무의 소유권이 속하게 된다. 유실물을 취득시 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존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있다. 대구에서 800만 원가량의 지폐를 길거리에 뿌렸을 경우 경찰은 소유자가 돈의 소유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폐를 주워간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경찰이나 돈 소유자가 뿌려진 돈을 찾고 있는데 이 경우 돈을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은 법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와 닿았고,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전달력도 높였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1. 15.	시청률	0.007

【총 평】

낡은 것의 아름다움을 찾고 익숙한 공간을 지키려는 귀농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평균 나이 98.3세, 부여 규암마을 시골 구옥”을 방송했다. 시간이 멈춘 듯 낡고 오래된 동네가 최근 전통문화와 공예로 덧입혀진 새로운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30대 여성이다. 이곳의 방치된 근대 건축물을 눈여겨봤고 버려진 공간들에 이야기를 발굴해 살려내기 시작했다. 인적이 드물고 버려진 것만 같은 시골 규암 마을이 근대 건축물의 귀함과 이색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마을을 꿈꾸는 주인공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항상 웃는 얼굴로 지역 발전과 자아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추진력이 흥미를 유발했다.

【구성 및 내용】

충남 부여군 규암마을에 귀농한 30대 여성이 운영하는 작은 책방을 소개하면서 이 곳에 정착하게 된 계기며 책방을 새롭게 꾸미게 된 과정 등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다. 시작부분에 허름한 간판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100년 후에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서 의미심장했다. 주인공이 운영하는 책방과 공예점이 차례로 소개가 되면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옛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녀의 남다른 안목이 대단했다. 80년 된 담배가게는 옛 모습 그대로 책방이자 문화공간으로 바뀌었고 우체국이었던가 전파사로 사용했던 건물은 전통 공예품 가게로 변신했다. 옛 요정을 카페로 탈바꿈한 수월옥은 전통 도자기 잔에 차를 마실 수 있는 이색공간이다. 또 100년 된 근대 가옥을 개조해 만든 한옥스테이 ‘이안당’은 양조장 주인택이었던 곳이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낡은 옛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책방 소개에 이어 자온길 일대의 오래된 상가와 폐허가 된 건물들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프랑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셰프, 전통무용을 전공하는 바리스타, 지역에서 전통문화를 공부하는 학생까지 뜻있는 지역 예술인들도 함께 자온길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자온길의 ‘자온’은 스스로 따뜻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의 세간 길 프로젝트 세간 길 프로젝트 팀이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한옥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한옥의 밤과 아침의 풍경을 그려내고 한옥에 얹힌 사연도 소개했다. 이 밖에 동네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동네를 소개하면서 옛 건물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사라져가는 옛 건물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그녀의 가치관이 색다른 감동을 주었고 새 건물, 현대화된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겨주었다. 오래된 가옥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데 개인이 해낸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업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11. 15.	시청률	0.057

【총 평】

IT는 현대인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이므로, 소프트웨어 기획자는 시의성이 있었다. '미래를 프로그래밍하라 - 소프트웨어 기획자'는 '소프트웨어기획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서부터 취업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조건과 자질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져 관련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기획, 개발, 디자인의 과정을 거치는데, 다. 그중 건축설계처럼 소프트웨어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소프트웨어 기획자가 담당한다.

【구성 및 내용】

IT가 일상화 되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코딩, IOI 등 요즘 생활용어로도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풀어주어 연령이 높은 시청자를 비롯해, 시청자들도 알아두면 좋은 유익한 정보가 많았다.

오늘 소개한 회사는 기업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회사로 글로벌 IT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국내는 물론 베트남까지 영역을 넓어가고 있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고객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조율하며 각 기업이 쉽게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해 주는 업무'를 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시청자들로 하여금 업체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했다.

'선배의 하루'에서는 기획팀에서 일하는 취업선배의 하루를 들여다보았다. 직접 개발한 플랫폼을 소개해 주었고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는 클라이언트와의 피드백, 그리고 팀원들과의 신규 플랫폼과 관련한 회의 등을 보여주었다.

'나의 취업 합격 비법'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IT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라고 하면서 구글에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줬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 또, 자주 쓰는 앱을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작은 앱 하나에도 많은 고민과 프로세스가 녹아있다는 점에서 분석과 관찰을 통해 학습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밖에 일하고 싶은 회사를 먼저 공부하라고 했는데,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회사의 비전과 본인이 부합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향후 입사 후에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또, 회사대표가 "완성형 인재보다는 발전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특히, 취업 컨설턴트 출연자가 업체 대표를 향해 "만일 능력이 좋은 줄 알고 사원을 뽑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못하면 함께 키워줄 수 있나?"라고 질문을 던져 마치 시청자나 구직자 입장에서 업체를 평가하는 구성이 신선했다.

'화상 모의면접'은 소프트웨어 개발 국가대표 후보 학생, 그리고 VR게임 개발 경험이 있는 학생 등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의 학생 2명과 화상면접을 진행했다.